“허왕후 가야불교 해양루트 발견”

가야문화진흥원, 6월 27일 가야문화 콘텐츠 학술대회

도명 스님, 지명 통한 경로 추정 〈삼국유사〉 추가연구 필요 주장 황순일 교수, 참파왕국 근거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야문화진흥원,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 한국인도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가 6월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됐다.

“〈삼국유사〉 속 지명에서는 가야불교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허황옥 왕후의 루트가 발견됐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 한국인도학회(회장 이거룡)가 공동 주최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가 6월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됐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허황옥 왕후의 도래 경로’를 재검토하고 가야문화에 대한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서 도명 스님은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발표서 가야는 허황옥 왕후와의 만남과 입지적 조건이 만나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허황옥 해양 루트설’에 대한 근거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나온 지명을 제시했다.

도명 스님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망산도’, ‘승점’, ‘주포’, ‘기출변’, ‘능현’, ‘황후사’ 등 지명 중 망산도는 현재 견마도이며 주포는 창원시 주포마을로 추청된다”며 “허황옥 도래 경로를 〈삼국유사〉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남방 해상무역루트는 가야불교의 형성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고대 해상무역 왕국인 참파(Champa) 왕국의 교역품을 보면 인도불교가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에 전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왕국의 교역품을 보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한반도 남단 가야까지 연결돼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거룡 선문대 교수의 ‘가야불교 연구의 주제와 방법 재검토(명월사 사왕석 부조의 인도 기원을 중심으로)’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참파(Champa)와 남방 해상 실크로드’ △강형철 동국대 연구교수의 ‘인도설화 수용양상(어산불영을 중심으로)이 발표됐다.

각각 최경아 동국대 강사, 부은암 지원 스님, 이재수 동국대 교수, 문무왕 동명대 초빙교수,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 남치우 동명대 초빙교수가 논평했다.

2부에서는 석길암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영 동국대 연구교수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야 역사교육의 쟁점과 과제 △여여정사 도명 스님의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정진영 캘거리대 박사의 ‘구지가에 대한 신화원형 분석과 포스트모던적인 의미’가 발표됐다.

또한 박정석 목포대 교수와 법진 스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진원 동국대 박사와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이지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병진 동명대 강사가 논평에 참여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 정홍섭 동명대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원효사 창건주 원효 스님 다례재 봉행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는 6월 24일 경내 원효전에서 ‘원효성사 탄신 1403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원효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다례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에 이어 원효사의 창건주인 원효 스님에 대한 사부대중의 헌향, 헌다, 헌화가 이어졌다. 주지 해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효사는 화쟁사상에 의거한 수행도량이다. 앞으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더욱더 정진하는 사찰로 거듭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성불교사암聯, 장성군에 장학금 전달



전남 장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금강, 금강사 주지)는 6월 29일 장성군청을 방문해 지역 사찰에서 후원한 장학기금 2,000만원을 장성군(군수 유두석) 장성장학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금강 스님을 비롯한 장성지역 회원사찰 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 등 백양사 소임자 스님들, 유두석 군수 등이 참여했다. 기금을 마련한 금강 스님은 “지역의 인재양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불정사, 인재 양성 위한 무차 공양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6월 29일 부산대학교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부산대 고시 준비반인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3,750만 원을 약정했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우리 사찰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의 교육기관인 부산대를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은 끝없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수학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갈 든든한 동력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저소득 어르신 위한 원기 회복 키트 지원



미소원 청년회는 6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지역 불자 청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보양식을 선물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청년회는 6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원기 회복 키트 지원사업’에 회향됐다.

‘원기 회복 키트 지원 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어르신 100세대에 삼계탕, 소고기죽, 전복죽, 갈비탕, 사골곰탕, 추어탕 등 즉석식품을 마련해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나눔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칫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원기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양식 구입을 위해 미소원 청년회는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식 후 청년회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박미주 미소원 청년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며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게 한 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보양식을 받으며 “감사하다”며 “큰 기운을 선물 받은 것 같다. 모두 건강하자”고 밝은 얼굴로 화답했다.

미소원 청년회는 2017년 2월 미소원 법당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매월 정기법회 및 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11월 11일 정식 출범했다. 현재 미혼 남녀 및 신혼부부 등 젊은 불자들을 중심으로 30 · 40대 청년 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나눔 활동을 위해 미소원 청년회는 매년 일일 희망나눔 맛집을 열고 후원금 마련 행사를 열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정사 수진 스님, 동명대 발전 후원



부산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부산 동명대에 발전 기금을 후원하고 인재불사를 이어갔다. 해인정사 수진 스님은 7월 1일 동명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현재 동명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잘 회향되길 기원했다.

수진 스님은 “좋은 환경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내소사, 목조사천왕상 조성불사 회향

혜산 대종사 15주기 추모재도 함께 열려



부안 내소사는 6월 26일 천왕문에서 목조사천왕상 점안식과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아름다운 전나무길과 꽃살무늬 창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가 3년 여에 걸친 목조사천왕상불사를 회향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26일 천왕문에서 목조사천왕상 점안식과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새로 조성된 내소사 목조사천왕상은 1983년 조성된 기존의 FRP사천왕상이 낡고 훼손돼 2017년 7월 조성불사를 시작으로 이번에 점안식 및 회향불사를 봉행하게 됐다.

목조사천왕상 점안식은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이 증명하고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회향법회에는 주지 진성 스님과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종소 스님, 선운사 기획국장 진용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3년여에 걸친 사천왕상 불사를 마친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83년 중창주이신 우암당 혜산 대종사께서 주지로 부임한 후 폐사 직전의 내소사를 현재 대가람으로 변모시켰다”며 “우암당 혜산 대종사의 15주기 추모재일에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점안법요식과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돼 불보살님과 동참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기쁨이 바른 법을 펴고 중생의 안락으로 이어지길 당부하며 목조사천왕상 조성불사 회향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치하했다.

회향식에 이어 대중보전에서는 우암당 혜산 대종사 제15주기 추모법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 상량

천대종 종정 도용 스님 법문으로 축원


삼광사는 6월 27일 경내 조사전 건립 현장에서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6월 27일 경내 조사전 건립 현장에서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삼광사는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중흥 원력을 기리기 위해 대조사전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대조사전은 지난해 9월 착공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전수자 김종양 대목장이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면적 280㎡, 높이 18m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날 상량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경과보고 △개회사 △상량문 낭독 △상량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법요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가르침을 따르는 신심 깊은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 모아 법의 기둥 받쳐 들어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법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삼광사 대조사전은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다. 대조사전이 낙성되면 천태도량의 새로운 성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삼광사 도량의 건립을 부촉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대조사전 불사를 통해 더욱 널리 전하고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량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3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 한국전쟁 70주년 수륙재

1000여 명 모여 코로나 극복 발원


태화문화진흥원은 6월 25일 울산 백양사 일대에서 ‘2020년 국태민안 수륙대재’를 거행했다.

울산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이사장 산옹)은 6월 25일 울산 백양사 일대에서 ‘울산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2020년 국태민안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수륙대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산옹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화림사 대원 스님, 법륜사 눌암 스님 외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조종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육법공양 △108헌다례 △내빈소개 △봉행사 △격려사 △추도사 △청법가 △법문 △발원문 △추모곡 △헌화 △수륙대재 봉송의식 순으로 마무리 됐다.

이사장 산옹 스님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숨진 민간인들을 위로 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울산 시민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정성스러운 육법공양과 108명의 신도들이 올리는 헌화를 보며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이 감동 받아 극락왕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륙대재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종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백양사에서 처음으로 위패를 모시고 재를 지내니 감개무량하다”며 “영가를 기리는 추모탑이 11월에 착공예정이다. 그곳에 412명의 위패를 모실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